

지역 소식통

고창군,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 취소

고창군이 심원면 만돌리 해역의 패류양식어장 대체개발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패류양식 어장은 대체개발도 조건부 승인 어장 3개소 중 1개소다. 지난 2019년 '고창군-부안군 간의 해상경계 관한 쟁의심판' 결과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대체개발 처분했다.

이후 전라북도 조건부 승인 사항인 대체개발 수면 '인근 어장 동의'와 관련, "어촌계 수렴 없이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고창군은 사실확인을 위해 어촌계에 2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어촌계 답변서를 통해 어촌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귀속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 2일까지 받는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22년도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민약 신고납부 기한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급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부안=김석진기자

# 정읍시,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

### 보험료 75%까지... 축산농가 경영 불안 해소

정읍시가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가축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 재해 보험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가의 실손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가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금은 농가가 자부담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농가 순으로 지원한다.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NH농협, KB, 한화, DB, 현대, 삼성 등 6개 손해보험사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등 재해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지역 축산농가는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서둘러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 벚꽃축제, 25만명 방문 '화려한 벚꽃엔딩'

### 최적 개화 시기·다양한 프로그램·적극 홍보 '삼박자 척척' 결실

정읍시 대표 봄 축제인 '2023 정읍 벚꽃축제'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시에 따르면 '정읍 핑크빛 사랑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장에는 4일간 역대 최대 인원인 25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벚꽃축제에 5만 8천 명, 2019년도에 11만 명과 비교해 봤을 때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찾으면서 인근 업소의 음식 재료가 동이나 판매하지 못하는 등 코로나 19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장에 많은 방문객이 몰린 것은 최적의 개화 시기와 축제 기간이 잘 맞물린 데다 다양한 프로그램, 여러



언론 매체와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진·영상물 홍보, 축제 기간 내 이어진 화창한 날씨,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산리 폭발 등이 꼽힌다.

축제 개막식에서는 정읍시 홍보대사

인 트로트 셋백 김태연·방서희를 비롯해 문화육·정주·조연비 등 유명 가수 초청공연이 열리며 행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기주)는 7월 31일까지(4개월간) 양귀비 개화(5~6월)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밀 경작 및 아편 밀 조자 밀매 사범, 대마 밀경작과 밀매 및 투약·흡연자 등 관련 사범,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유통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안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에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밀경작 우려가 있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양귀비는 국내 법률로 규제하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국내는 아편 목적으로

대규모로 재배 사례는 찾기 힘들지만, 배양액과 진통제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안=김석진기자

# "평화의 소중함과 인권의 가치를"

### 고창군, 제73주기 6·25양민 희생자 합동 위령제 개최

고창군 6.25양민희생자 제전위원회(위원장 양완수)가 5일 오전 공음면 어울림센터에서 '제73주기 6.25양민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열었다.

위령제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분향, 추념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6.25양민희생자 제전위원회 양완수 위원장은 "당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희생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되새겨 보고 평화의 소중함과 인권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고창군과 고창군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공음면 선동리 6.25양민희생자 위령탑은 고창군 7개 지역에서 1700여명이



무참하게 학살된 사건들과 관련해 고인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2007년 4월 5일 건립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진실이 일부나마 밝혀지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레이캐슬 김세희 지배인, 부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세종시 레이캐슬 컨트리클럽 김세희 지배인이 5일 부안군의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50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레이캐슬 컨트리클럽은 차량 판매 너머 365일 다채로운 석양을 볼 수 있으며, 국제 대회를 치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전장길이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코스를 품고 있다.

2019년 개장한 후 페어웨이 및 그린 관리가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골퍼들에게 입소문 난 골프장이다.

김세희 지배인은 "부안이 고향은 아니지만 빼어난 경관과 풍부한 먹거리가 있어 자주 다녔던 곳으로 내 마음



속 고향이다. 오늘의 기부가 아름다운 부안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최고액 500만 원의 기부금을 내어주었다.

권익현 부안 군수는 "부안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톡 톡 기부를 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굳은 다짐을 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보령아산병원,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

정읍아산병원(병원장 임경수)과 보령아산병원(병원장 최중수)이 정읍-보령 간 지역발전을 응원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보령아산병원 임직원들은 5일 정읍 시청을 방문해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하며 기부제의 활성화를 응원했다.

이에 앞서 정읍아산병원 임직원 100여 명은 지난달 30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령시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두 병원은 서로의 지자체에 상호 기부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응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상호 발전과 의료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서비스 증진과 홍보 사업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보령아산병원 최중수 병원장은 "두 병원 간 협력을 통해 각각의 지역발전을 응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화수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